

##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

### 둘째날 / 부활과 생명

하용조 목사 / 고린도전서 15 : 42~ 58

####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마지막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상처받을까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챙기시는 목자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훌쩍 떠나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남으셔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격려와 치유와 회복을 하는 사흘을 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사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다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실수를 만회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번 다섯 번의 새벽기도회 '주님과의 부활의 초대'는 그런 회복, 치유, 격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 비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격려·치유·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까지 다시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불러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배신한 사람을 충성스런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스런 제자들에게 희망, 비전, 사명을 주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괜찮다. 안심하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 너는 할일이 있다. 여기서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혼으로, 은퇴로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네게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 부활과 성령님

여러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오십니까? 우리는 이 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설교 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괄호는 매우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

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천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 놀라운 영적 공식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들었느냐? 실패했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말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너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부활과 성령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열쇠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몸이 힘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칙, 곧 생명의 법칙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내게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은 동물, 나무, 우주의 일반적인 생명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정의를 하면, 죽음의 반대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산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생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은 썩습니다. 무덤에서 흙이 됩니다. 이것은 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열매 맺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번식합니다.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식들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전해집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번식은 순간에서 영원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촛불이 바람에 날리듯이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러나 ‘내 걸 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한 바울처럼,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어도 믿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 생각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힘이 나고, 영향력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지닌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바로 생기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생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 생명의 근원, 주 하나님

생명력이 있는 축복, 이 생명의 이 근원과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삼라만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은 창조물의 최고봉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절망할까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죄와 절망이란 생명을 잃어버린,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 희망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생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요한1서 5장 11~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과 생명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 관절염이 있다, 피부가 나쁘다,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늙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그것을 붙잡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껍데기,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그 생명이 찬양하느냐, 기도하느냐, 그 생명이 영향력과 전염성을 갖느냐, 번식하느냐, 꽃을 피우느냐,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 생명력이 부활과 생명, 예수와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 부활의 축복

따라서 부활의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와 어둠의 법칙은 다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법칙, 어둠, 저주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만찬의 메뉴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적인, 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저주는 복으로, 어둠은 빛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고통은 환희와 감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값싼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자기합리화나 자기최면, 자기설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직장에 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부딪힌다 해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패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승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승

리를 누리는 사람이요,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과 입으로 여러분을 살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 5:16~18)' 이것은 모두 여러분을 살리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됩니다. 시시한 것은 다 통과시키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평강과 사명을 약속하셨고, 성령님도 약속해주셨습니다. 이런 보석, 보물, 비밀을 갖고도 비참할 필요가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비참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 생명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

지금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42~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죽은 자가 왜 살아났을까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이 다 살아납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은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계속 헛갈렸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계속 받았을 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45절 말씀에 나오는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living being)'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은 '살려주는 영(life-giving spirit)'입니다.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즉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 해주십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는 46, 4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아들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했고, 첫째 아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8절)라는 이 비밀스런 생명의 언어들, 개념들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49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일어나지만, 지금 바로 이곳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육체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겪습니다. 세상에서 허무하게, 목적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회심하고 변하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질내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갈림

길, 생명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 두 세계가 계속 있습니다.

### **주님, 내 안의 생수 영원히 공급해**

예수를 처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비스럽게도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생명과 기쁨, 희망,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50~5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박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은 우리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 내일은 내일 삼시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최소한 미소라도 전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향력을 주변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